

광주시 '시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돌입

폭염·가뭄 재난 대비책 마련 경로당·공사장 등 합동 점검 전염병·식중독 등 전담반 구성

폭염이 예년보다 빨리 시작되자 광주시가 여름철 시민 안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식중독·전염병 등 여름철 위생을 지키는 한편 경로당 등 비취한 폭염 취약계층, 가뭄현상 및 대형공사장 등 여름철 건강과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합동점검했다.

광주시는 최근 '시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추진단(단장 행정부시장)회의'를 열어 시와 자치구, 유관기관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폭염·가뭄 등 취약분야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은 새 정부 출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각종 안전관리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오는 9월23일까지 100일간 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 유관기관이 참여해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여름철 풍수해·가뭄·폭염, 야영장·유원시설·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전염병, 식중독, 대형공사장 등 11개 부서 소관 분야별로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 내 취약시설을 점검을 하고 있다. 박병호 행정부시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고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에는 조기에 설치해 사고를 예방하고, 때 이른 무더위와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 기관이 적극 협조해 지역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예년보다 빨리 첫 폭염경

보가 발령됨에 따라 지난 20일에는 폭서·가뭄특별대책TF를 구성하고 농업용수, 생활용수, 경로당 워터 등 3개 분야의 일일 상황보고회를 여는 등 시민생활안전에 전념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시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기간에는 시의 역량을 집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응할 계획이다"며 "시민들도 생활 주변 위험요인이 없는지 평소 확인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출입문 폐쇄장치 효율화' 광주도시철도공사 우수상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김성호)는 최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관 '철도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창의적인 안전관리방안을 제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최초로 '전동차 출입문 무선폐쇄장치'를 자체 개발, 기존 2인이 투입되던 업무를 1인이 담당 가능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과로 눈길을 모았다.

이번 철도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총 15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중 1차 서면심사, 2차 사례발표 등을 통해 최종 4개 기관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공사 김성호 사장은 "분업연구 활성화 등 창의적 업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성과가 나타나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안전도시철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건강하게 자라거라" 조선태양병원(병원장 이상홍)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와 소아청소년과는 최근 조선태 의과대학 2호관 한마음홀에서 조선태병원에서 태어나고 퇴원한 이르면이와 가족을 초청해 제1회 홈케어데이 행사를 열었다. <조선태병원 제공>

광주시, 가뭄 피해 전남 5개 시·군 양수기 전달

광주시가 상생협력을 펼쳐오고 있는 인접 전남 시·군지역의 가뭄 극복 지원에 나섰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함평읍사무소에서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나주시, 함평군,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등 빙고생활

권행정협의회 소속 5개 시·군에 양수장비를 전달했다. 이날 지원된 장비는 양수기 80대와 양수호스 200롤(10km) 등 총 5000만원 상당이다. 이번 양수장비 지원은 윤장현 시장이 지난 19일 광산구 내산동 가뭄극복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지역 가뭄피해에 대해 상생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지 이틀만에 이뤄졌다. 윤 시장은 "앞으로도 좋은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서로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자"고 말했다. 이에 안병호 함평군수는 "귀한 마음 잘 받아 가뭄극복에 유용하게 쓰겠다"고 화답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 '에코투어' 시민 호응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이 시민과 함께하는 '에코투어(Eco-Tour)'를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의 에코투어는 성인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친환경 생활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올해로 2년째 운영되고 있다.

에코투어는 1일 동안 '물'과 '자원순환'이라는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광주 인근의 환경 명소를 둘러보고 하수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올해는 보다 실질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코스를 재정비하고 지난해보다 운영횟수를 증대했다. /채희종기자 chae@

공단에 따르면 상반기에 실시된 3회째의 에코투어의 만족도조사 결과(총 3회, 114명 응답), ▲참여한 시민의 99%가 프로그램에 만족한 것(매우만족 79%, 만족 20%, 보통 1%)으로 나타났으며 ▲재참여 의사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 또한 100%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환경공단 안용훈 이사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이 행복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에코투어는 3회 운영 예정이며 24인 이상의 성인 단체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환경공단 '에코투어' 참가자들이 하수처리장을 견학하는 모습. <환경공단 제공>

보훈처 "5·18 유공자 가산점 특혜 거짓"

광주시에 정식 통보

광주시는 일부 극우언론과 보수세력에서 퍼뜨리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의 가산점 특혜, 공무원시험 싸늘이 등 가짜뉴스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결과, 모두 거짓임을 지난 21일 정식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5·18유공자 5~10% 가산점'을 받아 공직 독점, '5·18유공자 귀족 대우'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국가기관 등에 취업한 가점 취업자 3만 2751명 중 5·18유공자는 391명으로 전체의 1.2% 밖에 되지않는 등 취업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이 되는 숫자는 극소수라는 입장이다. 2004년 5~10% 가산점을 받은 5·18 유공자 자녀가 공무원 7급 89.4%, 9급

85.6%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일부보도에 대해서도 가점을 받아 취업한 5·18 유공자 및 유가족은 22명으로 전체 가점취업자 2069명의 1.1%임을 밝혔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 5~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관련법에 따른 것으로 5·18을 포함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해당되며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5·18유공자는 182명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산점 과다특혜 등 가짜뉴스가 온오프라인에 퍼지고, 일부 보수단체가 지남 5월초부터 서울역 앞에서 '5·18유공자 가산점 폐지하라'는 집회를 열며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 배포하는 등의 역사왜곡에 대한 민원신고가 시에 급증함에 따라 5·18 유공자 특혜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게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식 가득 채운 '복지공간' 광주복지재단(대표이사 장현)은 지난 21일 재단 회의실에서 지식나눔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지식나눔활동가는 온라인 복지자원 공유방 '복지공간'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노하우에 대한 각종 칼럼 작성과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온라인 피드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재단 제공>

오늘 '광주형 일자리' 전문가 토론회

광주형일자리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2시 광주형 일자리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주최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 및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체결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 협약'을 통해 4대 정책으로 제시된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원·하청 관계 개혁, 노사 책임경영의 구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에 열리는 토론회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로 '광주형 일자리 적정 노동시간 실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지난 4월 열린 '적정임금

개념과 전략' 토론회에 이어, 광주형일자리 핵심과제 중 하나인 '적정 노동시간 실현'을 주제로 열린 계획이다. 이어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범협의회 위원장, 장흥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준형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정책실장, 윤영현 광주경제자총협 회장, 김보현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춘희 광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8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협의체인 '광주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 현재까지 14차례 걸쳐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 정문앞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룸 36개 5층건물 1층 커피전문점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 1천3백)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1중주거지역 슬로우 시티 옆 대지 3,041㎡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도시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점 대지 1326㎡ 상가건물, 창고 적합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만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게임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1~4층 대지 364,22㎡ 건물 827,74㎡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점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경매 추천 물건

- ★ [다가구] 광주 동구 산수동 3층건물 토지 275,1㎡ 건물 480,58㎡ 감정가 4억4천7백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 11,26㎡ 건물 23,68㎡ 감정가 2천8백3십만 ▶ 최저가 2천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식품공장, 창고용도 대지 3653㎡ 건물 3971,63㎡ 감정가 39억2천2백만 ▶ 최저가 27억4천5백
- ★ [농가시설]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문평산단인근) 대지 4683㎡ 건물 1599,8㎡ 감정가 3억2천1백만 ▶ 최저가 2억2천5백
- ★ [장례관련시설]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대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6백만 ▶ 최저가 17억 5백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